미국 12월 고용: 셧다운 여파 정상화

- 미국 12월 비농업 신규고용 5만건 증가, 실업률 4.4%로 전월비 하락
- 정부 셧다운 여파로부터의 정상화, 11월 일시적 실업률 상승 이후 반락
- 노동시장의 추세적 둔화는 지속, 급격한 악화 조짐은 아직까지 미약

경제 Note

2026. 1. 12

미국 12월 비농업 신규고용 5만건 증가, 실업률은 4.4%로 하락

미국 12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은 전월대비 5만건 증가하며 블룸버그 컨센서스(+7만건)를 하회했다. 세부적으로는 민간부문에서 고용이 3만7천건 증가한 가운데 정부부문에서 1만3천건 증가했다. 더불어 직전 2개월 고용건수가 모두 하향 조정되면서 3개월 이동평균선은 전월보다 가파르게 아래쪽을 향했다[그림 1]. 12월 실업률은 4.38%로 11월 4.54%대비 하락했고, 컨센서스 4.5%를 하회했다[그림 2].

정부 셧다운에 따른 일시적인 왜곡 이후 고용 데이터 정상화 진행

지난 10~11월 정부 셧다운의 여파를 반영하며 일시적인 왜곡이 발생했던 고용 데이터가 정상화되고 있다(미국 11월 고용: 셧다운 노이즈). 지난 11월에는 정부 셧다운에 따른 대규모 공무원 해고 등으로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추세보다 빠르게 올랐다. 그러나 12월에는 11월 대비 다시 실업률이 0.16%p 하락 전환했다. 셧다운으로 대규모 해고되었던 정부부문의 실업자가 다시 업무에 복귀하며 실업률 하락에 기여한 영향이 크다고 판단한다. 실업자 세부 항목별로 기여도를 분해해보면 전월대비 재구직자 기여도가 크게 감소하고 해고 및 사직에 따른 실업자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전체 실업자 중 재구직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11월 일시적 급등 이후 평월 수준으로 다시 축소되었다[그림 4]. 이를 반영하듯 트럼프의 정부 효율화 정책으로 연초 이후 감원이 이어지던 연방 공무원을 포함한 정부부문 고용이 10월 대규모 해고 이후에는 2개월 연속으로 플러스를 기록했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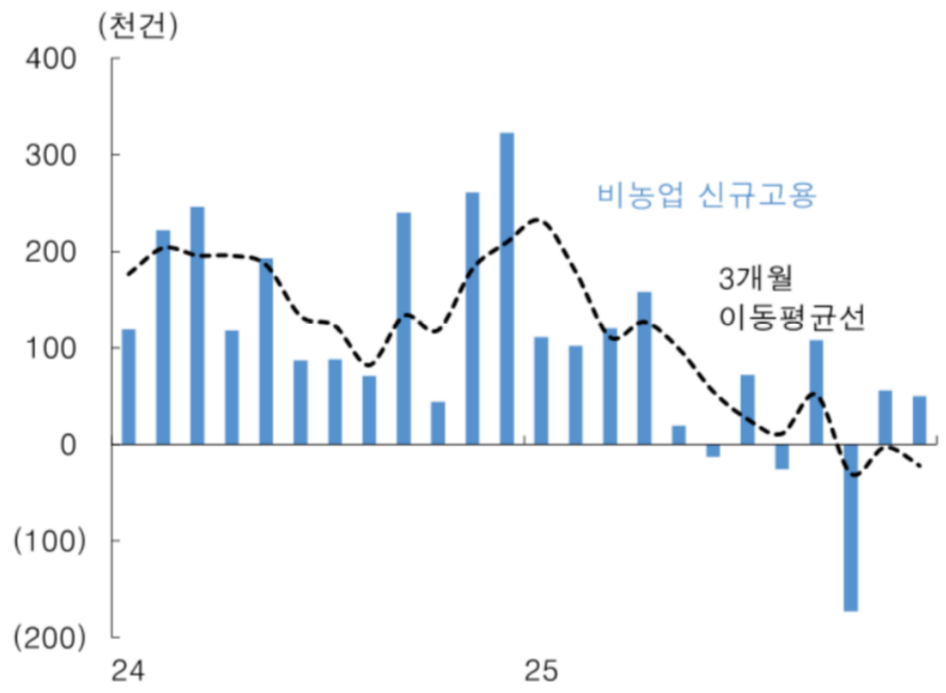
노동시장 추세적 둔화는 지속, 급격한 악화 조짐은 미약

노동시장이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나 급격한 악화 조짐은 미약하다. 기업들의 노동수요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가운데 노동공급은 증가하면서 수급이 지속적으로 좁혀지고 있다. 노동수급이 타이트한 정도를 나타내는 타이트니스가 마이너스 영역(수요<공급)까지 하락한 가운데, 노동시장 쿨다운으로 임금 상승세도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다[그림 6-7]. 특히 2025년 하반기 들어 신규 고용 증가폭이 눈에 띄게 둔화되었으나 현재는 급격한 해고 증가 및 노동시장 악화 조짐은 미약하다. 10월 급등했던 해고 건수가 다시 축소되고 있고, 신규 및 연속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신규 고용과 해고가 모두 낮아지는(no-hire, no-fire) 국면이기 때문에 연준의 인하 기조는 지속되겠으나 인하의 시급성은 급격한 고용 둔화가 시작되었던 지난 3분기보다는 축소되고 있다.

문다운
dw.moon@koreainvestmen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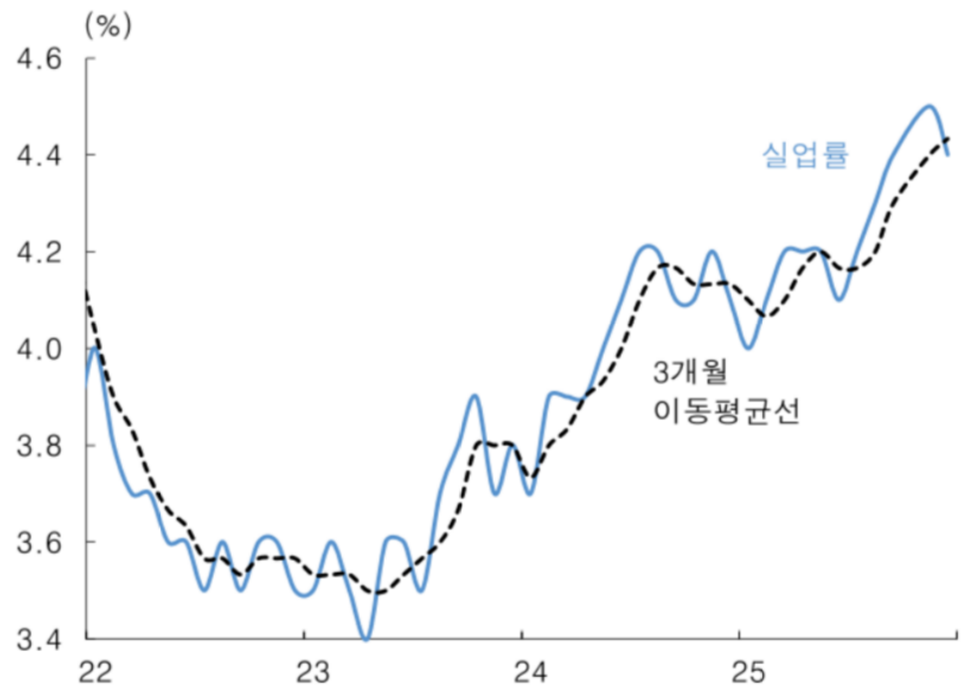
한국투자증권은 당사 고객 및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맺은 법인에게만 리서치 리포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사전 승인 없이 리포트를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및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림 1] 12월 비농업 신규고용 5만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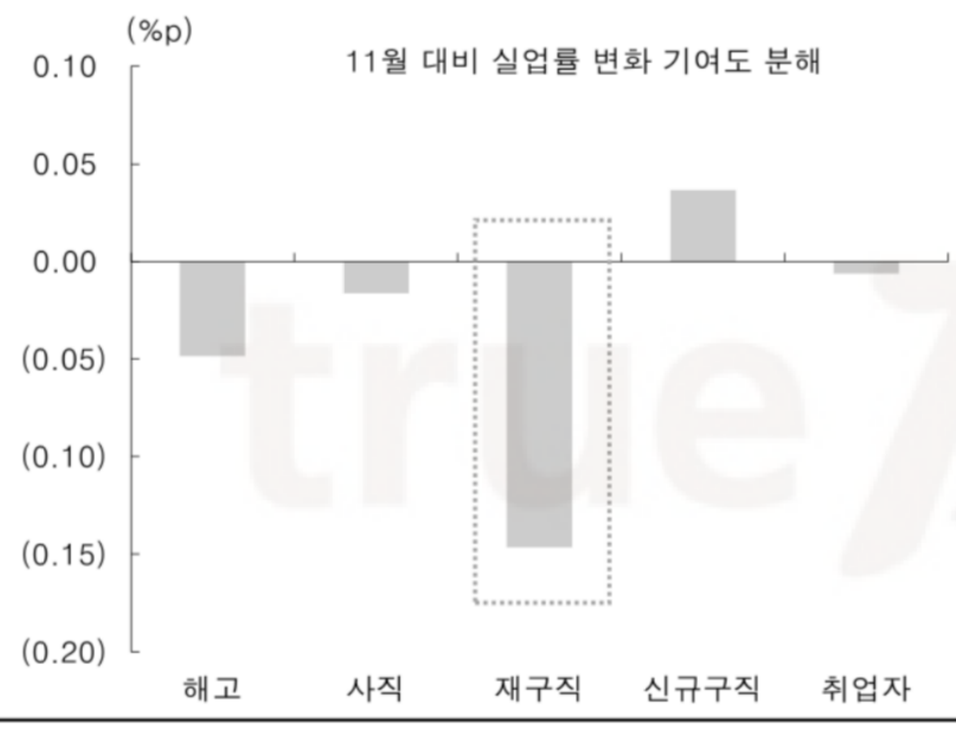
자료: BLS, 한국투자증권

[그림 2] 12월 실업률 4.38%로 11월 4.54%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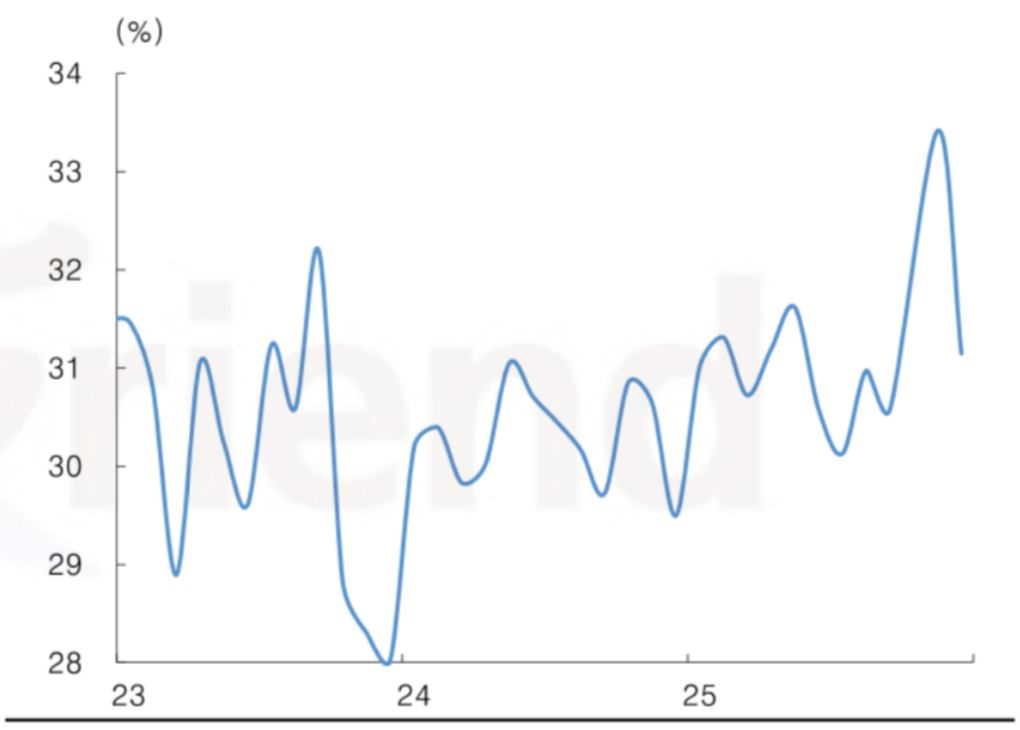
자료: BLS, 한국투자증권

[그림 3] 11월 → 12월 실업률 변화에 대한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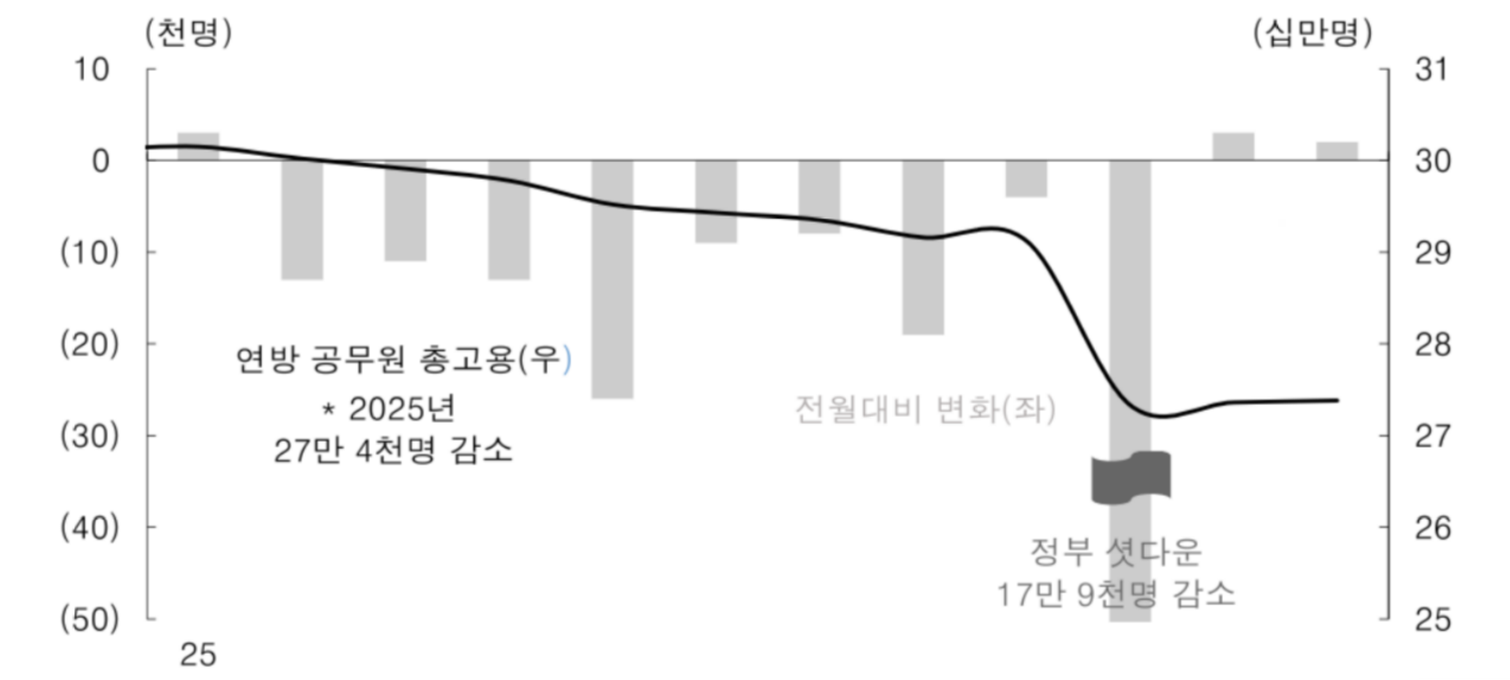
자료: BLS, 한국투자증권

[그림 4] 재구직에 따른 실업자 비중, 11월 급등 이후 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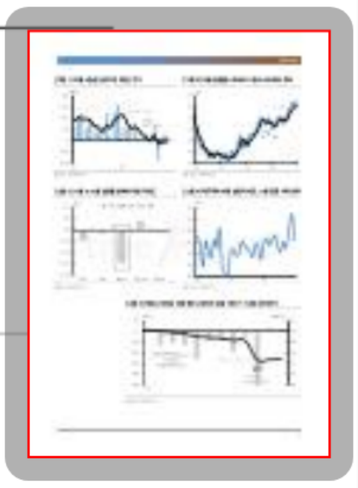


자료: BLS,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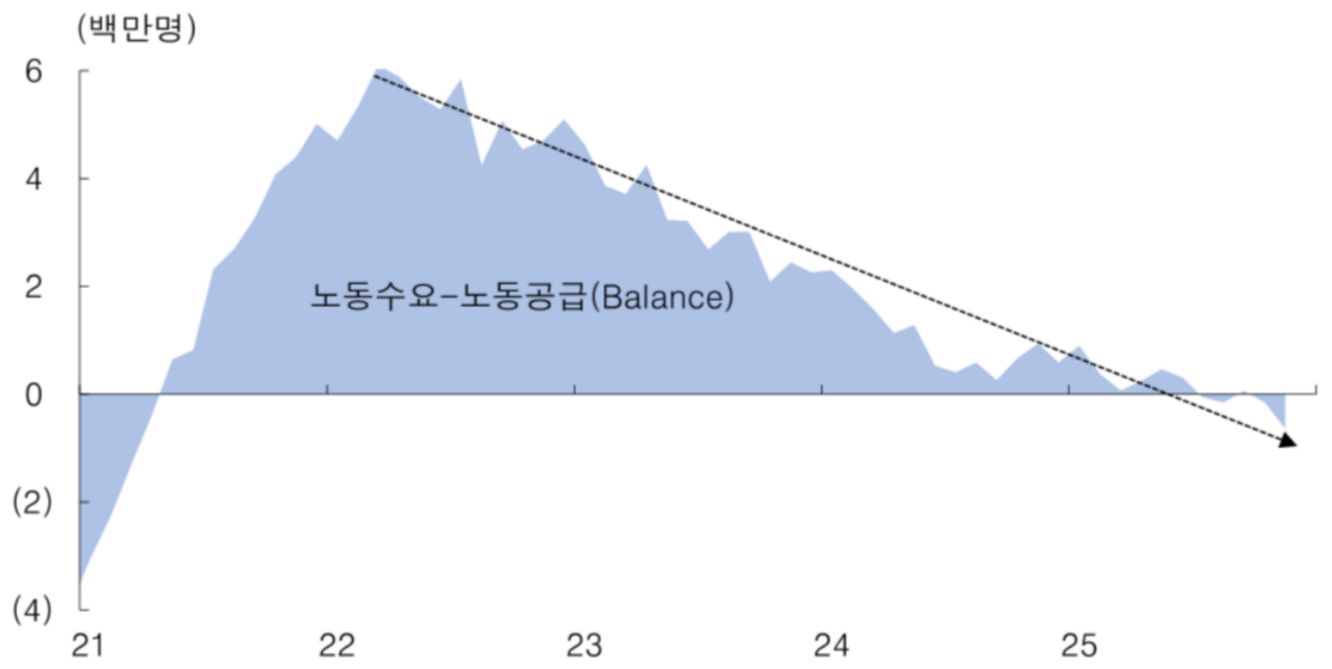
[그림 5] 셧다운 여파로 10월 정부 고용자수 급감 이후 11~12월 소폭 증가



자료: BLS,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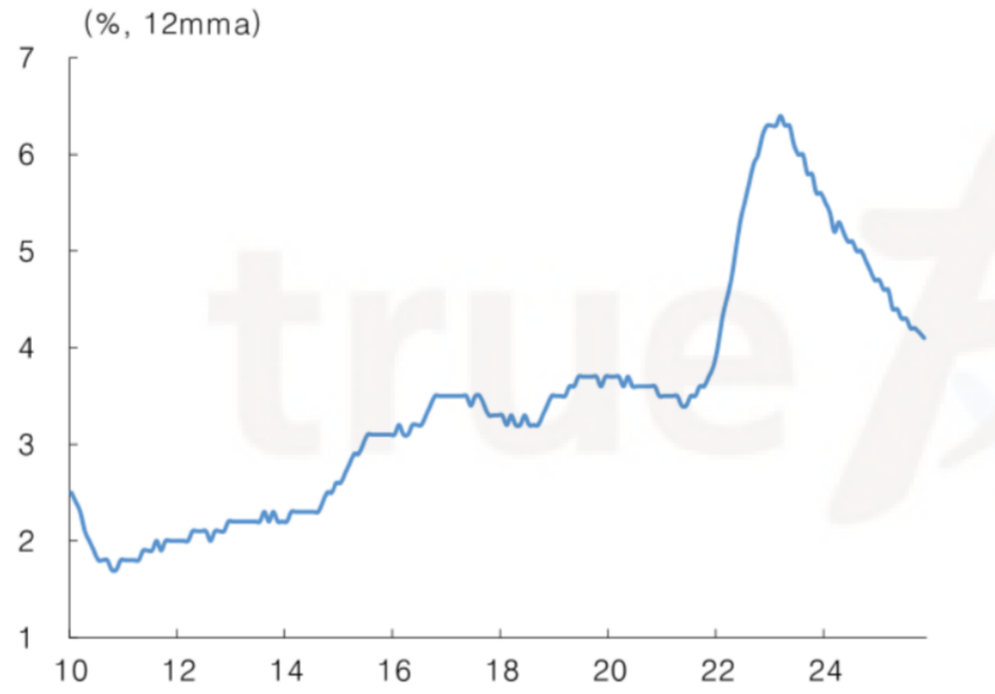


[그림 6] 미국 노동 수급은 마이너스까지 지속적으로 축소(수요 <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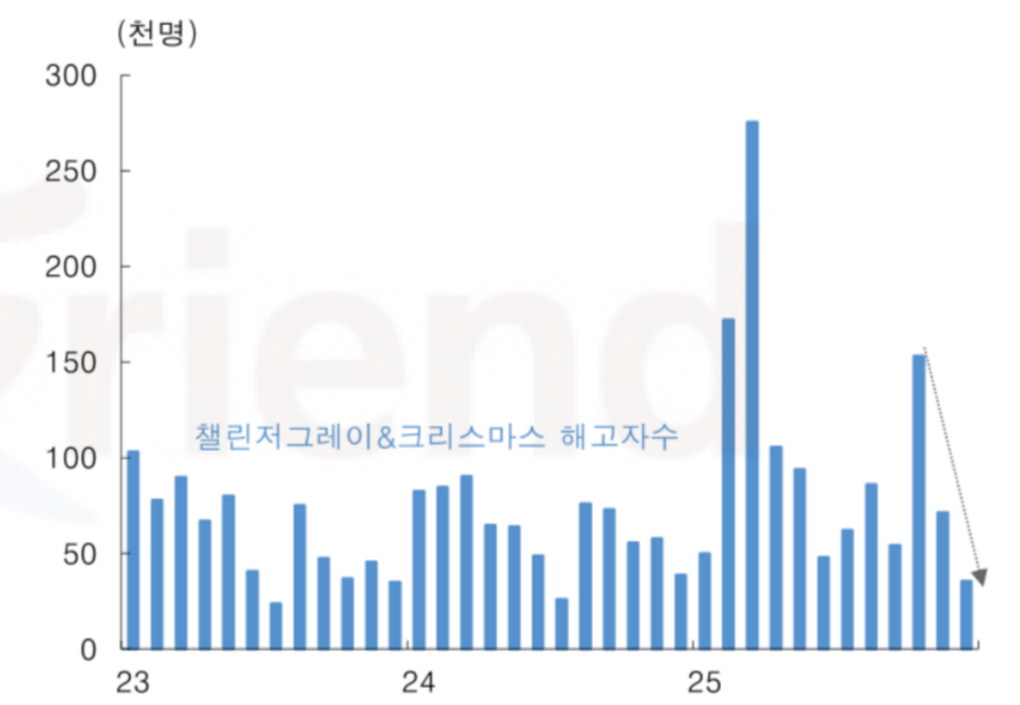
주: 노동수요는 취업자와 구인건수의 합, 노동공급은 경제활동인구로 설정
자료: BLS, 한국투자증권

[그림 7] 임금 트래커 추세적으로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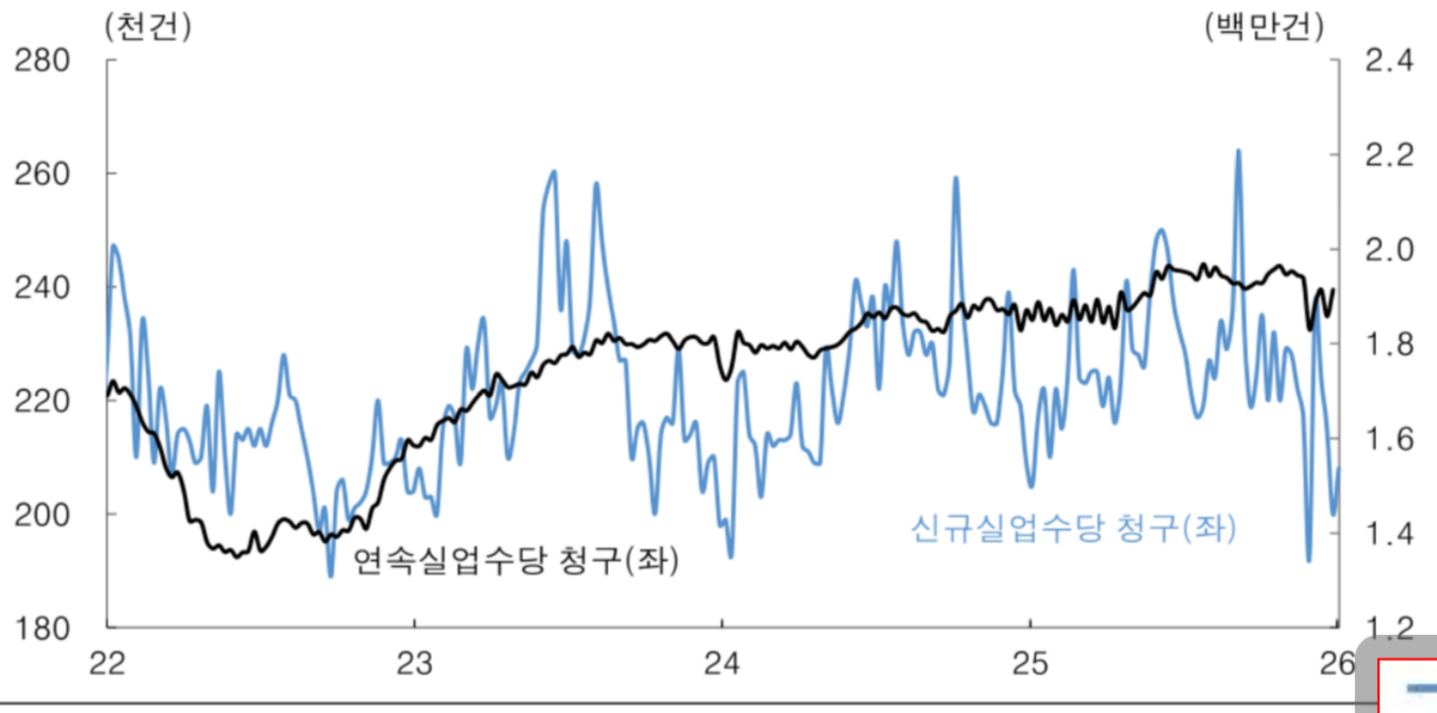
자료: Atlanta Fed, 한국투자증권

[그림 8] 12월 해고 3만 6천건으로 10월 급등 이후 축소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9] 신규실업수당 청구 20만건 내외 등락, 연속실업수당 청구 완만한 오름세



자료: BLS, 한국투자증권

■ 본 리포트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리포트는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리포트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본부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
■ 이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